

“농민 생활 복지 향상에

-농협 공제 계약자 복지 환원 사업을

옛부터 농민은 가진 것이 땅밖에 없다고 얘기되어져 왔다. 도시의 사시사철 흥청거림과는 무관한 듯 가을 추수가 끝나야 비로소 돈을 만져보게 되는 농민들. 그들의 얼굴엔 부유함이나 깔끔한 보다는 부지런함과, 흠과 함께 살아온 텃텃함이 강하게 배어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발달되는 문명 속에서 현대인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질병과 재해를, 그 흥청거림을 외면하듯 등져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 농협 공제사업은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라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

단단히 한 몫”

돌아본다.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이런 처지의 농민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협공제사업은 그동안 다양한 복지환원사업을 실시해, 이제는 대다수의 농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것은 지난 '86년부터 실시되어온 무료건강검사의 과정 속에서 농민의 입을 통해 입증되어지고 있다.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라는 모토아래 실시되고 있는 농협공제사업이 왜 농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농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 복지농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시작

농협 공제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61년 이었다. 이 사업은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복지 농촌을 건설하자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공제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정한 우연적 사고, 즉 질병·재해·상해·사망·퇴직 등에 따른 경제적 필요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으로 계산된 자금을 모아 공동 준비 계산을 만들고, 가입자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적 준비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공제는,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라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협동조합 보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공제 부 공제추진과 이재욱 대리는 공제사업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설명한다.

• 농민 생활 보장에 주력해왔다

농협 공제의 종류에는 크게 '65년부터 실시되어온 생명공제와 손해공제가 있는데 생명공제는 무궁화저축공제, 어린이 희망공제, 노후연금공제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14종이 있으며, 손해공제는 신원보증공제, 화재공제 등 5종이 있다.

총 1,463개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의 2단계 조직을 통해 수행되는 농협 공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농민의 생활보장과 복지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385,261천명이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공제사업은 농촌 가정 생활 안정과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제는 날로 변모해 가는 사회·경제적 상황, 질병양상의 변화, 즉 핵가족화,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노후 생활의 불안 증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제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복지환원 사업

농협공제가 갖는 유리한 점은 공제료가 저렴하고, 가입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배당이율이 상당히 높고, 공제로 납입유예기간(연 6개월, 월 2개월)을 두어 농민의 상황에 따라 납입할 수 있으며, 세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 공제 사업이 그 의의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민을 위한 복지환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날로 변모해가는 사회·경제적 상황·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등에 따라 필요성이 늘고 있는 공제 사업

공제추진과 이제욱대리는, 『농협공제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기능과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수단 등 고유기능 외에도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통해 계약자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실시 초기부터 복지환원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농민들에 대한 의료 혜택에 많은 주력을 해왔습니다.』라고 복지환원사업을 설명한다.

• '89년도엔 19,500명에게 장학금 지급

복지환원사업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즉 공제학자금지급, 농민건강검사, 진료비 대 지급제 실시, 수련소 운영 등이 그것이다.

공제 계약자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67년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던 농협은 '86년도부터는 그전까지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대학생자녀에게까지 확대 실시해오고 있다. '87년까지 총 85천명에게 64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88년에는 15,000명에게 2,69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19,5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인 이 학자금 지급은 농촌 지역 학생의 학비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질병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시작된 계약자 건강검사

공제사업초기부터 농민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던 농협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성인병이 농민에게도 예외일 수 없음을 깨닫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것의 구체화 작업으로 지난 '86년부터 공제계약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질병을 사전 예방한다는 목적 하에 간염검사와 자궁암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동안 공제계약자 가족을 대상으로 간염과 자궁암검사를 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실시했습니다.

'88년의 경우 간염 120,000명, 자궁암 75,000명, 뇨검사 195,0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농민의 호응도 좋고, “건강”이 “복지”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확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 전남도지회 성의철 대리의 얘기다.

• 농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농협 전남도지회는 건강검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아직까지도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셋째는 여자들의 경우 자궁암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 검사 유도가 쉽지 않다는 것 등이다.

그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농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계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6년부터 3년에 걸쳐 실시되어온 건강검사사업은 농협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남의 어느 마을의 경우는, 주민이 농협 검사에서 자궁암을 발견하고난 후, 개인적으로 자궁암검사를 받기 시작해, 그 마을 부녀의 대부분이 자궁암검사를 받고 정기 건강검사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농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로 했다.



▶ '86년부터 공제 계약자 가족을 대상으로 간염과 자궁암 검사를 실시

• 올해 건강검사는 6억들어 새로운 분야로

올해에도 약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할 계획인 농협은 『올해는 농민들에게 좀 더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염검사에 따른 처리는 일정 끝났다고 판단되어 심전도,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으로 확대 전환시켜볼 생각입니다.』 이재욱 대리의 열의에 찬 이야기다.



▶ 의료혜택과 더불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혜택이 농민 모두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

• 농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농협 공제 사업

농협은 그외에도 진료비 대 지급제를 실시해 급히 병원을 가야하는 계약자들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어주고 이후에 분할해서 갚도록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과 마리포에 휴양시설을 갖추고, 공제 계약자의 심신단련과 휴양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공제사업은 농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노력한 만큼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의료혜택의 범위도 확대되겠지만, 단지 의료혜택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농협 공제 사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간절하게 느껴졌다.